

消化管内視鏡診斷 Text(1) 1990年

山口大學竹本等 趙聖洛譯

위궤양 105

●치유과정기 (healing stage) 의 궤양

A₂: 백태의 비어져 나온 것이 소실되고 그 변연이 선명하게 된다. 주위의 염증도 꽤 가벼워지고 용기도 약간 적어진다. 점막주름의 집중이 생기게 된다. 재생상피상은 있어도 매우 적게 있다.

- 궤양의 치료과정기를 H₁ 과 H₂ 로 나눈다.
- 이 시기의 궤양은 작아지고 주위의 염증성 변화도 쇠퇴한다.
- 이 시기에 나타나는 집중점막주름이나 주위의 변화는 양·악성의 진단에 중요하다.

▶내시경 소견

H₁: 궤양은 알아지고, 백태는 깨끗하여 그 변연은 평활하게 된다. 재생상피는 명료하게 되고 주제는 거의 소실되어 점막주름이 백태의 변연까지 도달하여 집중되고 있다.

H₂: 궤양의 축소가 현저하게 된다. 백태는 없어진다. 재생상피의 폭은 넓어진다.

Reference

● 다음의 S₁ 중심의 퇴색반과 극히 적은 잔존한 백태와 감별이 어렵고 어느 쪽으로 다 분류하기 어려운 시기를 H₃ 으로 독립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.

● 재생상피는 내시경적으로는 궤양의 중심부를 향하여 방사상 혹은 나무 울타리 모양으로 배열한 발적으로 보인다.

- 궤양의 반흔기를 S₁ 과 S₂ 로 나눈다.
- S₁ 은 red scar, S₂ 는 white scar 로 불리운다.

반흔기는 점막손실이 완전히 수복되어 있는 점으로, 치유기와 조직학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이 시기로 되었을 때 궤양이 나왔다고 해도 좋다.

▶내시경적 소견

S₁: 점막손실은 소실되어 있으나 재생상피의 발적이 남아 있다. 그 중심에 작은 퇴색반이 보이는 경우도 많다. 점막주름은 완만하게 중심까지 뻗어 있다.

S₂: 발적도 소실되고 재생상피는 두텁고 주변 점막과 매우 같은 색조로 되어 있다. 주름의 집중도 없어져서 점막의 집중상 만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.

●반흔기(Scarring stage)의 궤양